



미 증시, 낙폭과대 인식 등으로 반등에 성공

미국 증시 리뷰

27 일(월)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급락 이후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1 월 기업투자 증가 및 기업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확산, 시장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다우 +0.22%, S&P500 +0.31%, 나스닥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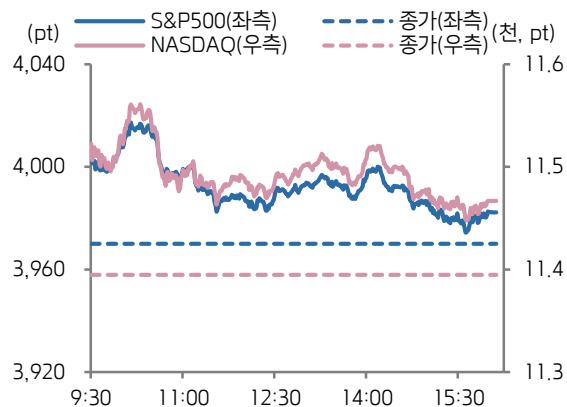
최소 3 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을 포함하는 미국 1 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4.5%(예상 -4.0%, 전월 5.1%) 감소기록. 운송장비 제외 내구재 주문은 0.7%(예상 0.1%, 전월 -0.4%) 증가해 전월대비 개선. 미 상무부는 보잉의 여객기 발주가 크게 줄면서 항공기 및 부품 신규 주문이 55% 감소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언급. 한편 기업 투자의 선행지표인 1 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신규 수주 전월 대비 0.8%(예상 0.0%, 전월 -0.3%) 증가하며 기업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유입.

미국 1 월 미결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8.1%(예상 1.0%, 전월 1.1%) 증가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작년 11 월 7%까지 급등했던 모기지 금리가 6.4%대로 하향 안정된 것에 기인. 일각에서는 주택거래 증가에 내구재 소비는 후행 증가하므로 향후 신규주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형성. 한편 2 월 댈러스연은 제조업활동지수는 -13.5(예상 -9.3, 전월 -8.4)로 감소폭 확대.

필립 제퍼슨 미 연준 이사는 이날 일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하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손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출 것임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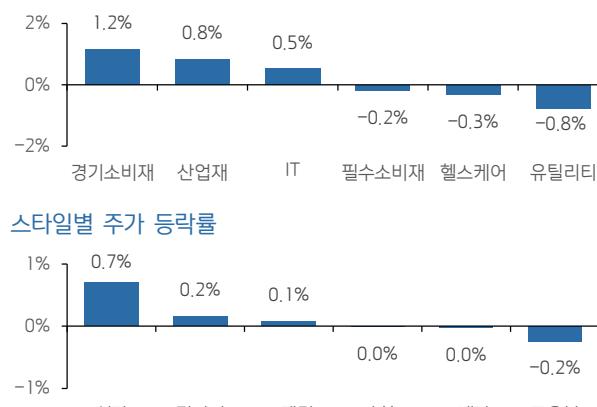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1.2%), 산업재(+0.8%), IT(+0.5%) 업종은 강세, 유틸리티(-0.8%), 헬스케어(-0.3%), 필수소비재(-0.2%) 업종은 약세. 이번주 타깃, 로우스, 메이시스, 코스트코 등 소매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소비재 업종에 저가매수세 유입. 테슬라(5.46%)는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일주일만에 모델 Y 생산량이 4,000로 증가, 생산능력이 두배 증가했다는 보도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 유입되며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02.64	-0.87%	USD/KRW	1,323.38	+1.43%
코스피 200	313.94	-0.95%	달러 지수	104.65	-0.53%
코스닥	780.30	+0.18%	EUR/USD	1.06	+0.58%
코스닥 150	1,120.92	+0.35%	USD/CNH	6.96	-0.3%
S&P500	3,982.24	+0.31%	USD/JPY	136.23	-0.18%
NASDAQ	11,466.98	+0.63%	채권시장		
다우	32,889.09	+0.22%	국고채 3년	3.700	+14.9bp
VIX	20.95	-3.32%	국고채 10년	3.630	+11bp
러셀 2000	1,896.27	+0.31%	미국 국채 2년	4.780	-3.3bp
필라. 반도체	2,951.21	+0.55%	미국 국채 10년	3.912	-3.1bp
다우 운송	14,824.68	+1.34%	미국 국채 30년	3.926	-0.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48.01	+1.66%	WTI	75.71	-0.8%
MSCI 전세계 지수	628.00	-1.17%	브렌트유	82.34	-0.99%
MSCI DM 지수	2,706.91	-1.11%	금	1824.3	+0.4%
MSCI EM 지수	971.87	-1.61%	은	20.58	-1.11%
MSCI 한국 ETF	58.72	+0.19%	구리	400.7	+1.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6.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 반등을 견인할 가능성

주요 체크 사항

-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수 여건 호전 여부

- 테슬라 밸 호재에도 차익실현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는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나 증시 측면에서도 모두 미국과 연관된 변수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그때 그때마다 혼재된 데이터들과 정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3 월 50bp 인상설, 최종금리 6%대 진입설 등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재차 확산되면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이 출현함에 따라 증시 불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금 주식시장이 금리, 달러, 연준 등 매크로 여건에 종속되어 버리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있는 것은 사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박스권 하향 이탈(코스피 기준 약 2,350pt 선) 등 추가적인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험관리를 해야하는 구간인 것은 맞지만, 주목해야할 것은 지금의 악재들이 신규 악재가 아니라 기존 악재의 성격이 질다는 점임. 기존의 악재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상당부분 내성이 생겼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최근 시장의 투자심리나 체감적인 주가 하락 정도는 거센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주가 변동성만 높았던 것일 뿐 증시 하방 경직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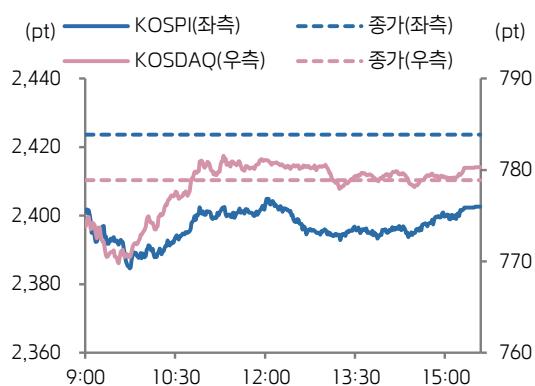
물론 증시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예정인 3 월 FOMC 전까지도, 연준, 인플레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최근에 출현한 주가 변동성 증폭에는 이 같은 기존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왔던 만큼, 현시점에서 과도한 주식 비중 축소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PCE 물가 서프라이즈,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로 인해 장 초반 하방 압력이 심화됐으나, 이후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2차전지, 로봇 및 AI 등 개별 테마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0.2%).

금일에는 1일 휴장을 앞둔 관망심리가 상존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증시 강세, 금리 급등세 진정 등 매크로 여건 호전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최근 외국인 수급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원/달러 환율 급등 문제의 경우, 달러 강세 완화, 외환 당국의 환율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등으로 인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테슬라(+5.5%)가 1 일 인베스터 데이 기대감 및 독일 공장에서의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일 국내 증시에서 에코프로비엠(+4.7%), 에코프로(+15.7%) 등 2 차전지 업종의 주가에 일정부분 관련 이슈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금일에는 장 초반 상승 후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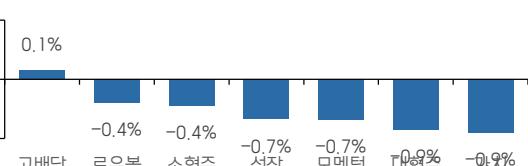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